

지역 매아리



부안군 행안면·원주시 무실동 자매결연 협약 체결

부안군 행안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홍우)와 원주시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홍)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발전하려고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 안면장과 행안면주민자치위원장 등 무실동장과 무실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공생발전과 주민의 경제적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김남철 행안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농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 공동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은도, 이하 다문화센터)가 결혼이민자들의 직업훈련 교육을 지원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문화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기초 소양교육과 함께 취업훈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자격증·면허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해 다문화센터는 지난 3월부터 종로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과정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 모두 15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고 이중 11명이 합격했다.

현재는 제과기능사교육과정(42회기)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취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으로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 훈련 교육의 내실을 기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내장산 관광특구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선정

국비 4억7300만원 확보, 내장호 경관조명설치 등 사계절 관광 활성화 '기대'

내장산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4억7300만원을 확보,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에 시비 4억7300만원을 더한 총 9억4600만원을 들여 내장산 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관련해 이달과 내달에 걸쳐 실시실제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내장호 경관에 어우러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재미와 테마가 있는 외국인 관광 홍보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2011~2012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제가요정읍사 오솔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산업으로 신축로가 조성됐으나 조명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야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내장산 관광특구는 내장호와 내장호



정읍시는 내장호 경관에 어우러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재미와 테마가 있는 외국인 관광 홍보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집단시설지구, 용산호 주변 내장산리 조트관광지 주변을 포함한 344만3835㎡(약104만평)로, 지난 1997년 1월 18일자로 지정됐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재원을 마련한 만큼 내장호

경관조명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볼거리를 제공, 내장산 사계절 관광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계화유채쌀축제 관광객 맞이 한창

체험행사·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간직농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축제"가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간 계화 간직전람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회 계화유채쌀축제 그리고 벵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준비와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축제 주요 대표 프로그램으로 곤포를 이용한 달걀 착작 경연대회, 허수아비 콘테스트, 벵이공예 체험 등 전통 농경 문화 체험마당과 계화 유채

쌀 가요제, 주민장기자랑, 길놀이 및 난타공연 등 가족단위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및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유채 쌀과 벵이의 만남 부안 벵이비빔밥을 맛 볼 수 있고 직접 만들어 먹는 '현미 누룽지 만들기' 체험 방문하시는 모든 관광객에게 계화 유채 쌀을 맛 볼 수 있는 나눔의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계화농협과 경관단지

협의회, 벵이축제추진위원회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주관단체 협약식을 갖고 주관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각자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계화 유채 쌀 축제를 전국 대표적 간직농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계화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해 농사를 하려고 땀 흘리신 농민을 위로하려고 마련 한 것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 공연 등으로 모두가 오복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김제지평선 축제장 찾아 '고창모양성제' 사진 홍보행사 진행

고창군과 (사)고창모양성보존회가 모양성보존, 애항청년회회원, 고창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세종시 정부청사와 김제지평선 축제장에서 '제44회 고창모양성제'를 알리는 사진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진 홍보행사는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모양성) 일원

에서 개최되는 '제44회 고창모양성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찾아올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홍보단은 모양성제 안내 리플릿 함께 지역 특산품을 함께 나눠주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전통의상인 노란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활동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정부청사 직원들과 방문객, 김제지평선 축제장

을 찾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정부청사 홍보에서는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고창모양성제'의 홍보에 함께 나섰으며,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깊어가는 가을, 순백의 메밀꽃을 즐기세요'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29일 개막

제11회 두승산 청정메밀축제가 오는 29일 개막돼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내 고향 반래덕 메밀밭에 놓고 지고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축제 주 무대는 고부면 입석리 반래덕 일대(고부면 고부리 산 31번지 일원, 행사 문의 063.539-7231)이다.

메밀꽃을 테마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벼 탈곡과 밭아 쟁기 밧볼 갈기, 떡메치기, 투호놀이 등 옛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민속경기도 진행되고, 아간에는 품바와 트로트가수공연, 시민노래 자랑도 이어진다.

밭아 쟁는 트기와 사슴 형상의 유등도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역특산물 홍보·관

매장도 운영, 메밀과 흑미, 홍미, 잡곡, 고구마 등을 판매한다.

이번 축제는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위원회·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후원한다.

축제위원회 김희훈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아가자기한 소규모 지역 축제로,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이다"며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추수연휴 기간 축제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11시 관창리 불제정 일원에서는 불제 풍경제도 열린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가 21일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25개소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총47건의 다양한 문제점 및 대책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으며, 15일부터 20일까지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사립과 비영리단체가 함께한 도시민들기 조례안"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향에 신설과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우천규 의원 발의 '고향에 신설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정 촉구 건의안'과, 대한민국은 식용GMO 세계최대 수입국으로 GMO가 식용류, 장류 등 GMO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안전표시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4건은 보류, 정읍시 장기 등 인체 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가 21일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25개소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총47건의 다양한 문제점 및 대책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으며, 15일부터 20일까지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향에 신설과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우천규 의원 발의 '고향에 신설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정 촉구 건의안'과, 대한민국은 식용GMO 세계최대 수입국으로 GMO가 식용류, 장류 등 GMO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안전표시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4건은 보류, 정읍시 장기 등 인체 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경찰서, '홍덕 1팀 전원 암묵지 선정'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최근 홍덕 제하 사거리 교차로에서 회전 중이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쏟아진 공병 40박스로 인해 교통불편과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 출동 노상을 정리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한 홍덕 1팀을 암묵지로 선정 경찰서장을 전수하고 격려했다.

대빛자무등을 이용 병조각들을 치운 홍덕 직원들은 "교통량이 많은 회전 교차로기에 2차 사고로 이어질것이 우려 관련 행정부서에 통보는 하였지

만 직접 현장에 나와 치우게 되었으며 다른 사고 없이 빠른 시간내에 교통소통이 정리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홍덕파출소장은 "홍덕 1팀은 30년 베테랑부터 이제 막 1년차인 새내기 경찰관까지 신구가 조화된 팀으로 평소 화합이 잘되고 신고사건은 물론 치안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인 팀으로 전원 암묵지에 선정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gsanmyeongju.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